

---

# 역사지리정보를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 - 근대 심양의 도시성장을 대상으로 -

Transformation of Urban Spatial Structure by Using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 Case Study of Shenyang in China -

---

이경찬\*, 최봉문\*\*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목원대학교 도시공학부\*\*

Kyung-Chan Lee(ikchan@wonkwang.ac.kr)\*, Bong-Moon Choi(bmchoi@mokwon.ac.kr)\*\*

---

### 요약

본 연구는 심양성의 도시평면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을 토대로 심양 도성형태의 형성·변화과정에서 표출되는 형태적 특성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변화와 문화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해석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심양의 도시구조를 시계열 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지도정보와 도면정보를 GIS DB로 구축하여 시계열별로 중첩비교하여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심양의 도시 형태적 특성은 첫째 개방적인 도성구조에서 폐쇄적인 도성구조로의 변화과정, 둘째 횡축기반의 수평적 공간구조의 종축기반의 수직적 공간구조의 결합, 셋째 실용적인 도성구조로부터 축과 중심성에 기초한 상징적인 도성구조로의 변화, 넷째, 자연에 순응한 도성구조로부터 중국고대도성제에 기초한 도성구조로의 변화, 다섯째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의 보존 등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파악되었다.

■ 중심어 : □역사 GIS □도시공간구조 | 도시형태 | 중국 심양 |

### Abstract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orphological change of Shenyang in the period of the rising Chung Dynasty. For that purpose we have tried to build the historical GIS DB of site and analysis of the structure and shape pattern of the city by using the functions of GIS.

From the view of spatial structure and cultural context, main characteristics, which i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ancient map of Shenyang, can be summarized into five things as follows : transformation of open spatial structure into closed structure, combination of horizontal spatial structure with vertical structure, transformation of practical spatial structure into symbolic structure, transformation of natural spatial structure into institutional form of ancient Chinese capital city, conservation of traditional Manchurian culture.

■ keyword : □Temporal GIS | Urban Spatial Structure | Urban Shape | Shenyang in China |

---

\* 본 연구는 2004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81205-002

심사완료일 : 2008년 12월 20일

접수일자 : 2008년 12월 05일

교신저자 : 이경찬, e-mail : ikchan@wonkwang.ac.kr

1. 서론

1. 연구배경

형태사적 측면에서 도시형성의 선행요건으로서 입지여건과 형성 초기의 도시기반구조, 기술여건, 그리고 도시변환과정에 개입되는 주체(agent)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 등은 연속성과 맥락성, 그리고 다양성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형태의 역사적 변환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요소가 된다. 도시형성의 선행요건으로서 입지여건은 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지형특성에 기반한 지형적 입지여건(site)과 교통여건이나 토지이용특성에 기반한 지리적 입지여건(situation)이 되지만, 도시형태와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지점이 지니는 이용가치와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성의 역할은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도성의 역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구조 역시 시대성을 반영하면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도성이 지니는 형태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착문화에 기반을 둔 원형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변형, 그리고 입지여건이나 기술발달 등 도성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심양성의 도시평면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을 토대로 심양 도성형태의 형성·변화과정에서 표출되는 형태적 특성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변화와 문화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심양의 도시공간구조와 성곽형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문헌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하고, 스캐닝과 벡터라이징등의 수치화 작업을 거쳐 전산도면으로 변환시킨 후 분석에 필요한 특정주제별로 요구되는 속성항목과 도면정보를 연계시킨 후, Temporal GIS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도시변화와 성장의 연혁과 사건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이어 GIS DB 구축과 구조화 과정 그리고 분석방법에 대한 발전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논문은 심양성의 도시평면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대상 도시에 대한 주요 형태요소를 추출하고, 각종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도면정보를 형태요소별·주요시기별로 재정리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이후 구축된 기초정보를 수치화한 후 도면과 속성정보의 구조화작업을 거쳐 시계열별 DB를 구축하였다.

도시공간구조의 형태변화를 찾아내기 위한 공간분석은 GIS의 기능 중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도면중첩(Overlay)을 통해 시기별 변화요소를 추출하고, 변화의 위치와 정도를 측정한 후 역사적 문헌자료와 현장조사 그리고 탐문을 통해 얻어진 경험적인 사실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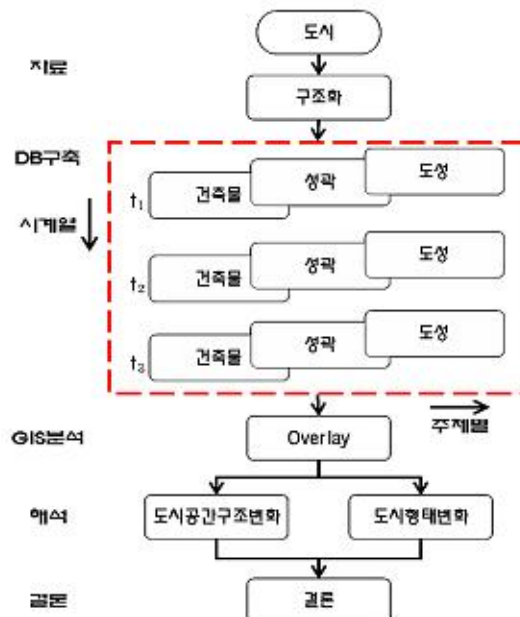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 II. 이론적 기초

### 1. 청조성립기 여진도성의 변천과정

청조 성립기 도성의 형성과정은 피아리(佛阿拉(費阿拉)城)-허투이라성(赫圖阿拉城)-자이판성(界凡城)-사르후성(薩爾新城)<sup>1)</sup>-遼陽 東京城-瀋陽城으로의 이행과정으로 요약된다. 먼저 佛阿拉(費阿拉)城은 누르하치가 1583(明萬曆11)년에 起兵하여 建州女眞의 各部를 통일해 나가면서 1587(萬曆15)년에 폐허화된 建州老營에 城郭을 쌓고 宮室을 축조한 곳으로 1603년 赫圖阿拉城 후에 興京이라 칭함)으로 옮겨 갈 때까지 16년간 누르하치의 통치거점으로 자리잡았다. 누르하치는 1597년 起兵한 이래 佛阿拉城를 거점으로 建州女眞의 各部를 완전히 통일함으로써 佛阿拉城은 당시 女眞社會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sup>2)</sup>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누르하치의 흥기과정에서 두 번째로 도성으로 주목되는 赫圖阿拉城은 누르하치가 1621년 4월 遼陽으로 遷都하기까지 약 19년 동안 여진부락의 통일과 對明전쟁에 있어서 군사적 거점으로써 뿐만 아니라 都城으로써 後金の 정치·군사·경제·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누르하치가 遼寧지역을 점령하고 훗날 皇太極이 清朝를 건립하는 기틀을 제공하였던 곳이다. 1603년 허투이라로 移居한 누르하치는 1616년 정월 초하루 날에 이곳에서 汗에 등극하고 天命이라 建元하며 金(aisin)國을 건립함으로써 허투이라는 마침내 都城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淸太宗 홍타이지시기(天聰年)에 허투이라성을 「天眷興京」이라 尊奉함으로써 清朝 최초의 본격적인 都城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요양의 동경성과 심양성은 사르후 전투 이후 요동지배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된 곳이다.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의 대승을 계기로 요동지배를 선포한 누르하치는

1) 사르후성과 자이판성은 누르하치의 대명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1618년에 “七大恨”을 명분으로 對明 정복전쟁을 선언한 누르하치는 遼寧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界凡(jiefan)城(1619년)과 薩爾新(sarbin)城(1620년)을 축조하여 친히 이곳에 주둔하면서 대명전쟁을 진두지휘하였다.

2) 누르하치는 佛阿拉城에서 女眞族의 수렵 생산 조직인 貂를 확대 개편하여 四旗의 군대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이 추후 女眞 各部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621년 4월에 팔기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遼陽으로의 遷都를 감행하였다. 요양으로 천도한 누르하치는 초창기에는 明代 요동도사의 官衙를 보수하여 汗宮으로 삼고, 遼陽의 舊城의 내부를 정돈하여 도성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遼陽城이 너무 넓고 성곽은 너무 낡아서 明을 정벌하고자 출병할 때 조선과 몽고 등 배후의 적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염려하여 舊城에서 동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太子河 주변에 새로운 都城을 건설하였는데, 이 곳이 누르하치 통치시기 후금체제에서 건설된 두 번째 도성으로 그 명칭은 金代의 여진인들이 요양을 東京이라 불렀던 것을 계승하여 東京城이라 칭하였다<sup>3)</sup>. 그러나 동경성은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 위치에 있어서도 掘山守險이라는 전략상의 이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어 도성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로 누르하치는 동경성을 축조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1625년 3월 전격적으로 瀋陽으로 遷都를 결정하였다.

### 2. 청조성립기 여진도성의 형태적 특성

#### 2.1 도성의 입지특성

입지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여진족의 정주지는 산주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발달되었다. 즉 여진족의 정주지는 대부분 소자하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밀집되어 발달되었는데,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산록을 중심으로 족장의 거주구역이자 방어성의 기능을 지닌 城地나 壘地가 입지하고 그 주변의 평지나 분지에 일반인의 거주지가 분포되는 입지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여진 정주지의 입지특성은 배후의 산지로부터 평지로 흐르는 산록을 중심으로 산을 등지고 도성이 입지하는 초기의 피아리성과 허투이라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대명전쟁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자이판성과 사르후성은 구릉지형 산지를 에워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피아리성과 허투이라성 및 자이판성과 사르후성에서 관찰되는 지형적 특성은 고구려 도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된다. 누르하치가 요심지역으로 진출한 이후에 축조된 동경성과 심양성은 이전의 도성과

3) 현재 遼陽市 東京郡 新城村 부근이다.





그림 1. 피아라성지 평면도 [14]



그림 2. 허투이라성 평면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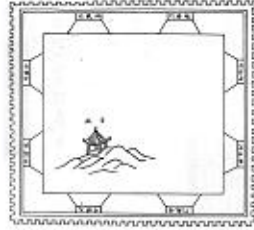


그림 3. 청대 요양 동경성 평면도(강희20년)



그림 4. 명대 심양 중위성 위치도



그림 5. 누르하치시기 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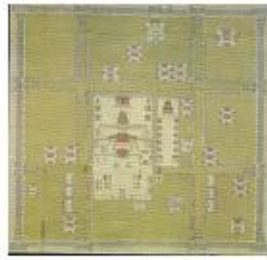


그림 6. 황태극시기 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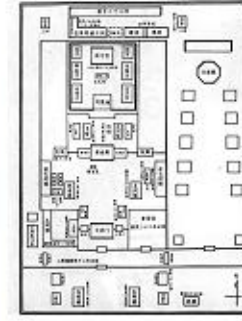


그림 7. 강희시대 심양고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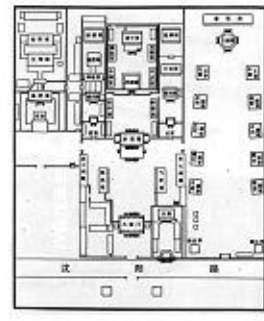


그림 8. 건륭시대 심양고궁

달리 분지나 벌판을 활용한 평지성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이양상은 산록을 근거로 성지가 입지되는 만주족의 전형적인 도시입지여건으로부터 평지형의 중국식 도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 2.2 지형-건축 사이의 관계

청조성립기 여진도성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건축과 지형 사이의 관계에서 관찰되는데, 지형상의 고저를 활용하여 건축의 지위를 확보하는 관습이 나타나고 있다. 피아라성에서 관찰되는 성의 고지를 활용하여 내성을 위치하고 지형상의 고저치를 반영하여 女西家와 小西家<sup>4)</sup>를 배치하는 포국, 허투이라성에서 지형상 가장 높은 곳인 북부 도로 동측에 위치한 금란전-<sup>5)</sup> 尊號臺의 위치와 <sup>6)</sup> 尊號臺의 후면에 고대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누르하치와 왕비의 거주공간은 이러한 관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이처럼 지형의 고저를 활용한 건축형태는 평지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동경성과 심양성에서도 변함없이 존속되고 있는데,

성 안의 고지를 선택하여 축조된 동경성의 宮과 殿 그리고 지형상의 고지를 선택하여 축조된 누르하치 시기 심양성의 大殿<sup>6)</sup> 등은 전통적인 관습을 계승한 것이었다.

## 2.3 도시공간구조

한편 도성공간구조는 도성의 성곽구조와 결부되어 나름대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佛阿拉城<sup>5)</sup>은 3중-外城, 內城 및 木柵城-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佛阿拉城의 內城과 外城은 「<sup>7)</sup> 夯築布櫛式土石城」으로 축조<sup>6)</sup>되었는데 이 방법은 천연자원인 木材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개발한 당시 女真人들의 독특한 築城法<sup>8)</sup>으로 간주된다.

1605년에 완공된 허투이라성은 一城一廓式의 大城(hecen)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 허투이라성은 內城과 外城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外城에는 동서남북 사면에 모두 9개가 설치되었고, 外城 안에 위치한 內

4) 『<sup>9)</sup> 聖州紀城圖記』 “<sup>10)</sup> 女西家在小西家北 兩向道排 小西家在女西家南向北道排”

5) 佛阿拉城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기록은 朝鮮의 申叟-이 撰한 『<sup>11)</sup> 聖州紀城圖記』이다.

6) 土石을 다져서(夯土) 쌓아 올린 후 土質의 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櫛木을 삽입하는 축성형식이다.

城에는 4개의 城門이 설치되었다.

태자하의 북안에 위치한 東京城은 外城이 없이 단지 하나의 城牆으로 구성된 중국식의 벌방성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康熙 20년에 작성된 「東京城圖」를 보면 8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東京城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식의 벌방성 성곽구조는 누르하치 시기 瀋陽에서도 잘 관찰된다. 명대 中衛城의 공간구조를 그대로 계승한 瀋陽城은 성 내부를 4개 구역으로 나누는 十字大路를 기본골격으로 동서남북 4면에는 4개의 城門이 설치되었고 十字大路의 교차부에 위치한 지형상의 고지에 中心廟가 위치하고 있었다. 명대 中衛城에서 관찰되는 十字大路의 기본골격은 僞代 초에 건설된 瀋州에서 채용되었는데, 僞金 元代까지 존속된 瀋州는 夯土式 城牆에 四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성 내부공간은 十字形街路를 채용하여 축조되었다. 특히 이러한 十字大路와 中心廟를 중심으로 구성된 명대 中衛城의 평면구조는 누르하치에 의한 심양 도성 건설 당시 황궁의 포국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III. 심양 도시구조의 변천과정

#### 1. 심양 도성의 형성과정 개괄

1616년 여진부락을 통일하고 “大金”을 건설한 누르하치는 1621년 심양과 요양을 점령하였다. 1625년(後金 天命10년) 요양 동경성으로부터 심양으로 천도를 단행한 누르하치는 심양성을 축조하였다. 누르하치가 심양성에 거주한 지 1년 6개월 뒤 사망하고 皇太極이 汗위를 계승한 뒤 심양성을 계속 축조하여 1631년에 기본골격이 완성되었다. 康熙 23년에 작성된 『盛京通志』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심양성의 城牆은 둘레길이 九里三百三十二步로서 明樓 八座 角樓 四座가 설치되어 있고 舊門을 개수하여 八門을 설치한 것으로 된다. 1634년 皇太極은 심양을 성경으로 개명하였다. 1637년(崇德8년) 성내에 鐘樓와 鼓樓를 수축하고 1644년 북경 천도 후에는 성경을 陪都로 삼았다. 1657년에 성경성 안에 奉天府를 설치하고 1664년(康熙3년)에는 承德縣을 설치하여 봉천부의 首縣으로 삼았다. 1680년에 성밖에 關

을 증축하고 八關을 설치하였는데 關牆은 土版을 사용하여 축조되었으며 둘레길이는 16公里에 달하였다.

#### 2. 시기별 심양도성과 고궁의 공간구조 변화

##### 2.1 누르하치 시기의 심양

누르하치는 명대 심양 중위성의 十字形 길과 中心廟의 형상이 도시의 평면 형국을 개조하여 남북축을 사이(通天街)에 두고 십자형 도로 교차부의 동남축에 정무 공간으로서 金蘭寶殿 大政殿과 十王亭 등 초기 황궁의 권세를 상징하는 건축군-동로건축을 배치하고, 그 서측에 거주공간으로서 太祖居住宮과 王府 중심의 중로건축을 배치하였다. 당시의 동로건축은 태조의 정무공간으로서 大政殿을 중심축선상의 북측에 두고 그 전면 중축선상에 위치한 광장을 중심으로 十王亭이 八字로 배치되었다. 중로건축은 현재의 五宮이 위치한 중심축선상의 북단 대지에 太祖居住宮을 배치하고 중심축의 양측으로 3개의 왕부를 배치하였다.

##### 2.2 皇太極 시기의 심양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汗위에 등극한 皇太極은 1631년(천총5년)까지 十字形의 도로체계와 시문에 기초한 심양성의 공간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井字形의 도로체계를 기반으로 심양성의 기초를 형성한 후 1634년(천총8년)까지 심양 中衛城을 盛京으로 개명하고 八門을 축조하였다. 황태극은 정자형 포국의 중심구역을 대내공간으로 확정하고 황궁을 동서로 관통하는 심양 대로를 축으로 하여 서측 연천원문과 동측의 무근문 등 두개의 비방을 설치하고 누르하치 시기의 황궁 서측으로 새로운 황궁으로서 大內宮闕-중로건축을 축조하였다. 또한 황궁의 북측에 鼓樓와 鐘樓를 축조하고 심양 대로와 같은 쪽원을 지나는 兩樓를 관통하는 四平街(현 中街路)를 개설하여 대내궁궐의 북측 경계로 활용하였다. 또한 1632년(천총6년)에 황궁 남측의 朝陽街와 正陽街 주변으로 六部와 兩院(都察院, 理藩院)를 설치하였다.

##### 2.3 康熙-乾隆 시기의 심양 도성

皇太極 시기에 대내궁궐을 중심으로 황궁의 기틀을 마련한 성경성은 康熙와 乾隆 년간에 걸쳐 크게 개수되

었다. 먼저 康熙19년(1680년)에 성 밖에 關牆을 증축하고 八關을 설치하여 성경성은 '郭과 '城이 갖추어진' '郭圍城坊의 도성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康熙는 關牆을 설치하면서 성내 井字形의 도로체계를 關牆까지 연장하는 한편 12條의 기본 간선도로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후 성경성은 康熙 21년, 32년, 54년에 걸쳐 수차례 중수되다가 乾隆 시대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乾隆 시대 심양성의 개조는 乾隆 4년부터 8년, 18년, 28년, 37년, 41년, 43년부터 45년에 이르는 수차례의 시기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에 특히 황궁이 중수되고 규모가 확대되어 장관을 이루었다.

이후 乾隆 황제는 첫 번째 東瀋 이후 바로 조상의 궁전에 대하여 대규모의 수리와 증축을 단행하였다. 먼저 乾隆 11년부터 13년(1746년-1748년) 사이에 中路 皇太極 시기 대내궁궐의 양측에 별도의 東西 行幄(東所, 西所)을 추가하고 궁전 100여칸을 새로 축조하였다. 乾隆 13년에는 中路 大滿門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던 景佑宮을 성밖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太廟를 이축하였다. 이와 함께 乾隆은 大滿門에서 崇政殿에 이르는 第二進院落과 崇政殿에서 鳳凰樓 이르는 第三進院落에 대한 개수를 단행하였다. 乾隆 46년부터 48년 사이에 中路建築의 서측에 기존의 황궁과는 별개로 황제와 황후의 문화·여가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西路建築을 축조하였다.

#### IV. 심양 도시공간구조의 형태변화 해석

##### 1. 폐쇄적 도성구조로 변화

심양 도성의 공간구조 변화과정에서 관찰되는 변화 양상 중에 가장 큰 특성의 하나는 개방적인 도성구조로부터 폐쇄적인 도성구조로의 변화과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대정전과 심왕정으로 둘러싸인 개방형 팔자형 광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누르하치 시기의 황성 공간구조와 중정형의 마당과 연계된 자기완결적 院落들로 구성된 별도 구획의 대내궁궐을 중심으로 형성된 皇太極 시기 이후의 황성 공간구조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康熙 乾隆 시대를 거치면서 중로건축

에 태묘를 비롯한 행궁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자기 완결적인 황궁공간구조와 원락과 성장 사이에 형성되는 미로형의 순행로는 폐쇄적인 도성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특징으로 관찰된다.

##### 2. 종축기반의 공간구조의 결합

심양 도성의 공간구조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하나의 특징적 현상은 濼陽路를 주축으로 한 횡축 중심의 공간구조로부터 횡축을 개개의 건축군의 중심방향을 연결하는 종축 중심의 공간구조가 결합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간의 흐름이 따라 서로 다른 시기에 축조되는 건축군을 횡방향으로 연결하는 濼陽路가 개개 건축군의 종축과 연결되어 조정기능이 강화되면서 황족의 사적인 활동을 횡방향으로 연결시키는 동선이 요구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대내궁궐이 위치한 중로건축의 대청문 전면공간으로부터 동로건축과 서로건축의 연결통로가 개개 건축군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형태로 확립되어 고궁의 질서체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3. 상징적인 도성구조로의 변화

심양 도성의 공간구조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하나의 특징적 현상은 실용성이 강조된 도성구조로부터 권위와 상징성에 기초한 도성구조의 변화과정이다. 누르하치 시기의 도성구조는 명대 중위성의 도시골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상황논리에 따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황궁을 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정전과 심왕정으로 둘러싸인 광장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 황궁 공간구성 역시 실용성을 강조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실용성이 강조되는 심양 도성 공간구조는 황권이 강화되는 皇太極 시기 이후에 축과 대칭성, 그리고 중심성에 기초한 상징적인 공간구조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로건축의 궁전을 연결하는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濼陽路와 수직으로 형성된 종축을 중심으로 한 대칭적인 황성의 공간구조와 井字形 가로골격을 기반으로 형성된 九區의 구획 중에 가장 중심부의 구획에 황성을

위치함으로써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는 도성공간구조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 4. 중국고대도성제의 반영

심양 도성의 공간구조 변화과정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특성 중의 하나는 자연에 순응한 도성구조로부터 도성제에 기초한 도성구조로의 변화양상이다. 누르하치 시기 심양 도성의 공간구조는 전통적인 만족 도성의 관습을 답습하여 명대 중위성의 중심묘와 북릉-동릉으로 이어지는 천연의 병장을 이용하여 황성을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皇太極 시기 이후 한문화에 대한 융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심양 도성은 중국 고대 도성계획수법에 기초한 도성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井字形의 도로골격에 의하여 九區의 구획을 확정하고 중앙부에 황궁을 위치하는 포국형태, 대내궁벽의 중심공간으로서 崇政殿의 중심성 강화과정, 중로건축의 대청문 남측 조정공간과 북측 四平街에 상업공간의 배치형태에서 나타나는 前朝後市의 원칙, 중로건축의 북측에 위치한 창녕궁과 남측의 숭정전의 배치형태에서 나타나는 面朝後廡의 원칙, 皇太極 시기에 무문문 밖에 축조된 후 乾隆 년대에 中路 大清門의 동측에 이진된 太廟의 배치형태에서 관찰되는 佐廟佑社의 원칙, 康熙대 關牆과 都城의 포국이 지니는 圓圍城方의 형태적 특성 등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인식된다.

#### 5. 만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의 계승

누르하치 시기로부터 청대 도성으로 자리를 확보한 심양 도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족 고대도성제도의 공간구성원리를 흡수하면서 정형화되고 격식있는 도성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지만, 만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이 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형상 고지를 중시하는 여진 고성의 관습은 평지성에 기초한 중국 고대 도성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심양 도성경관을 연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고지를 중시하는 만족의 관습은 누르하치 시기 황궁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도성내 가장 지세가 높은 곳에 대정전을 축조되고 북경성에서 관찰되는 '宮低殿高'의 양식과는 차별화되는 '宮高殿低'의 경관특성을 연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여진 고성의 문화적 관습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누르하치 시기에 건설된 동로건축과 皇太極 시기 중로건축 궁의 배치형태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먼저 누르하치 시기에 동로건축의 八角殿 양식을 지니고 있는 大政殿과 八字形 포국을 갖추고 있는 十王亭의 배치형태는 팔자형을 중시하는 만족 고유의 관습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당시 중로건축에 분포하고 있던 누르하치의 거주 구역과 왕부는 사합원의 배치양식을 지닌 두개의 원락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만족 귀족 원락의 공간구성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 V. 결론

도시형성의 선행요건인 입지여건은 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지형특성에 기반한 지형적 입지여건과 교통여건이나 토지이용특성 등에 기반한 지리적 입지여건이 되지만, 도시형태와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미시적 관점에서는 지점이 지니는 이용가치와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의 중심이며 상징적인 축을 형성시키는 도성의 역할은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도성의 역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구조 역시 시대성을 반영하면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는 심양성의 도시평면에 대한 형태학적 분석을 토대로 심양 도성형태의 형성·변화과정에서 표출되는 형태적 특성을 도출하는 한편, 이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변화와 문화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중국 심양의 도시공간구조와 성곽형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문헌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하고, 이들 자료를 수치지도화시킨 후 구조화 편집을 통해 GIS DB로 구축시켰으며, Temporal GIS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심양의 도시형태적 변화는 첫째, 개방적인 도성구조에서 폐쇄적으로 변화하였고, 둘째,



심양보를 중심으로 한 횡축 중심의 공간구조에서 추가 되는 건축물을 통해 종축 기반의 공간구조가 결합되어 가는 점, 셋째, 실용성이 강조되었던 초기구조에서 상징성이 중시되는 도성구조로 변화되었고, 넷째, 자연에 순응하는 구조에서 도성제에 기반한 구조로 변화되었으며, 끝으로 이러한 변화의 기초에는 한족의 공간구성원리를 흡수하면서도 민족 고유의 전통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도시공간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자료에 기록되고, 도면으로 표현된 사실은 그 결과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각각의 단면적 현상이 상호간, 시계열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이론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역사적인 도시발전을 해석하기 위하여 위한 도면과 지도의 재구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발달의 이론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도시변화와 성장의 연혁과 사건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이어 GIS DB 구축과 구조화 과정 그리고 분석방법에 대한 발전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康熙) “盛京通志”  
 [2] (乾隆) “盛京通志”  
 [3] 方殿春, 張克學, “瀋陽故城 北方文物”, 第3期 1985.  
 [4] 陳伯超 支運亭, “瀋陽故宮建築”, 機械工業出版社, 2003.  
 [5] 瀋陽市 人民政府地方志編纂辦公室 編 “瀋陽市志”, p.13, 1990.  
 [6] 李景蘭 金駿士, “古城遼陽與清初的東京城”, 東北地方史研究 第1期 p.51, 1985.  
 [7] 人民美術出版社, “瀋陽舊影”, 2000.  
 [8] 王明琦 “努爾哈赤宮室與瀋陽城—九門”, 社會科學輯刊 第2期 1984.

[9] 王明琦 “瀋陽故宮早期建築年代研究”, 遼海文物學刊 第2期 1986.  
 [10] 鐵玉欽, “論清入關前都城城郭與宮殿演變”, 國際清史論文集, 1980.  
 [11] 鐵玉欽 “論清入關前都城城郭與宮殿的演變”, 明清史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1982.  
 [12] 鐵玉欽 “關於瀋陽清故宮早期建築的考察”, 建築歷史與理論 第2輯 1981.  
 [13] 鐵玉欽 “瀋陽故宮”, 遼寧人民出版社, 1985.  
 [14] 傅波, “撫順地區清前遺跡考察紀實”,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p.16, p.30, 1994.  
 [15] 伊藤清造 “奉天宮殿建築の研究”, 1929.  
 [16] 최봉문, 김항집, 서동조, 도시정보와 GIS 대왕사, 1999.

저자 소개

이 경 찬(Kyung-Chan Lee)

정희원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공학사)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석사)  
 •1992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1993년 9월 ~ 현재 :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도시설계, 도시형태학, 도시정보

최 봉 문(Bong-Moon Choi)

정희원



•1985년 2월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공학사)  
 •1987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석사)  
 •1992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공학박사)  
 •1992년 6월 ~ 현재 : 목원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도시계획, GIS, 도시계획정보